



부귀면 봉암리 봉우재봉 봉수 잔존모습

진안 주요 봉수유적 정밀지표조사 추진

전북도-진안군, 위치·범위·잔존현황 등 파악 위해 봉암리 봉우재봉·백화리 망바위·주평리 봉우재 등

진안군과 전북도가 진안의 주요 봉수유적에 대한 정확한 위치, 범위, 잔존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정밀지표조사 추진한다. 이번 조사 대상 유적은 진안 부귀면 봉암리 봉우재봉 봉수, 안전면 백화리 망바위 봉수, 상전면 주평리 봉우재 봉수로, 잔존현황이 우수하거나 조사 가치가 높다고 알려진 봉수 유적이다. 봉수는 햇빛이나 연기로 나라의 변란 등을 중앙에 알리는 통신제다. 그 동안의 조사에서 진안지역의 봉수유적은 총 25여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에는 진안을 비롯한 진안고원 일대의 봉수가 장수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양상이 확인되면서 가야문화와의 관련성이 추정되고 있기도 하다.

진안은 일찍이 삼국시대부터 백제의 영역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1990년대 중후반 용담댐 수몰지역인 용담면 월계리 황산리 고분군 등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다수의 가야토기가 확인되면서 가야문화와의 연관성이 주목되기 시작했다. 황산리 고분군에서는 신라토기도 함께 출토되어 진안이 백제 뿐만 아니라 가야, 신라 등의 문화가 중첩되어 나타나는 지역으로, 전북 동북지역 교통로의 중심지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에 진안군은 이번 주요 봉수유적 정밀지표 조사를 통해 진안지역 주요 봉수유적의 잔존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조사·정비를 도모할 계획이며, 나아가 전북도와 진안지역의 가야문화유산 현황 파악과 조사·연구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예스24-돌베개, 전자책 무료 대여로 '사회적 거리두기'

고(故) 신영복 교수와 유시민 노무현재단이 사장이 쓴 스테디셀러 도서의 전자책을 무료로 만나볼 수 있다. 인터넷서점 예스24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 종식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의 일환으로 돌베개 출판사와 전자책 무료 대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대상 도서는 돌베개에서 출간된 전자책 약

110종이다. 신영복 교수의 '갑욕으로부터의 사색', '담론'을 비롯해 유시민 이사장의 '역사의 역사', '나의 한국현대사' 등 스테디셀러와 SF 거장과 걸작의 연대기, '철수 이야기' 등 신간도 포함됐다. 이날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되며 예스24 회원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뉴시스

불상의 부속물?... 전국 사찰 '불단' 정밀조사

문화재청, 올해 전북·전남 16개 사찰 대상으로 진행

그동안 불상을 봉안하는 부속물로 인식돼온 불단(佛壇)의 가치를 제대로 조명하기 위한 정밀조사가 이뤄진다. 문화재청은 불교문화연구소와 함께 올해부터 5년간 전국 사찰의 불단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불단은 사찰의 건물 내부에 불상을 올려두고 예배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한 일종의 받침대다. 이른바 수미단(須彌壇)으로도 불린다. 불단은 건물 내부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자 불상을 봉안하고 의례에 필요한 다양한 공양기물(供養器物)을 차리기 위해 마련된 구조물이다. 불상의 봉안과 예배 방식의 변화에 따라 제작기술도 같이 발전해왔으며 당대의 우수한 장인들이 시대상을 반영해 다양한 문양과 도상을 정교하게 조각하는 만큼 역사·미술사 분야의 연구자료로서도 큰 가치를 지닌다. 또 목패(木牌), 소통(疎筒), 촛대 등 다양한 의식구들과 어우러져 불교문화의 전통과 독창성을 보여주고 있어 보존할 가치가 크다는 게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단은 건물의 부속물로 인식돼 불상, 불화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다. 더욱이 주재료가 목재여서 수리가 쉽지 않은 동시에 변형되기 쉽고 화재, 충해, 습기 등 외부 환경에도 취약해 보존·복원을 위한 원형자료 구축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영천 은해사 백흥암 수미단

(사진=문화재청 제공)

이번 정밀조사는 불교문화재 일제조사의 3차 사업으로 진행되며 우선 올해 전라남도과 전라북도 지역의 16개 사찰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정밀 실측과 2차원 디지털 촬영, 3차원 입체 스캐닝과 도면 작업 등을 통한 원형 디지털 기록화 작업을 하게 되며 보존과학 조사와 안전도 점검 조사 등도 병행된다. 해당 불단의 역사·미술사 의미를 연구하는 인문학 조사도 종합적으로 시행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보존할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불단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해 안정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불단은 영천 은해사 백흥암 수미단(보물 제486호), 김천 직지사 대웅전 수미단(보물 제1859호) 등 2건이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전국 사찰 불단의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앞으로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사찰 목공예가 가진 우수성과 전통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더 나아가 불단에 조각된 다양한 문양과 도상(圖像)이 전통문화 콘텐츠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지역문화 발전 위해 열성 다해 봉사할 것"

김선유 신임 김제문화원장



지난 1월 제14대 김제문화원장 선거 공고를 통해 무투표 당선된 김선유 원장이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4년 동안 김제문화원을 이끌게 됐다. 김 원장은 국가의 위기상황인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취지에 동참하기 위해 올해 제14대 문화원장 취임식을 취소했으며 모든 사업을 잠시 중단하고 숨겨져 있는 김제 향토사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 원장은 지난 8년 동안 지속적인 향토사료 발간 사업을 비롯해서 시민교육사업, 각종 문화행사, 축제 등 사업의 외연을 확장시켜 김제문화원의 이미지를 전환하는데 기여했다. 특히 안위장군 심포지엄과 문화도시 문화마을 만들기 토론회는 숨어 있는 문화자산을 발굴해 시민들에게 김제의 새로운 문화적 지식과 시각을 각인 시키는 효과를 거

뒀다. 그리고 청소년을 위해 예절 교육, 디베이트(토론) 및 각종 대회를 열어 문화와 예술 실력을 향상 시켰으며 우수한 김제의 역사와 문화재를 알리기 위해 관내 초, 중, 고교를 방문하여 100여회 수업을 진행했다. 또한 책놀이 지도사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했다. 또한 찾아가는 문화마당을 신설하여 빛그림, 악단, 마술 공연을 유치원부터 요양원까지 문화 소외지역을 찾다니며 무료로 문화 나눔의 기회를 제공 하고 있다. 김 원장은 "김제문화원 1200여 회원의 뜻을 모아 김제 문화 발전을 위해 임기동안 열과 성을 다해 봉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오락실 '똑딱이' 앞으로 못쓴다

이른바 오락실에서 '똑딱이'로 불리던 게임 자동진행장치를 앞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웹보드게임 사용자 적용된 '일 손실한도' 규제는 폐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제16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물의 사행적인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게임제공업자가 자동진행장치를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게임 이용자가 사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자동진행장치는 게임기의 조이스틱 및 버튼을 게임 이용자 대신 자동적으로 반복해서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그동안 게임제공업소에서는 자동진행장치를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사용하도록 해 이용자가 조작하지 않고도 게임물을 자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 같은 게임 운영방식이 게임의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고 과도한 금액을 투입하도록 유도해 결과적으로 불법 환전으로 이어지는 등 사행심을 조장해 왔다고 문체부는 전했다. /뉴시스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